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 훅이 자신을 살라

(自身)

# 자기로 나투듯이

(磁器)

/ 도예가 지현 김기철

### 우리는 법정 스님을 보았을까?

깨달음을 얻고 사르나트로 가던 붓다와 만난 아지비카고 수행자 우파카는 붓다에게 묻는다. "당신 모습은 맑고 환하게 빛납니다. 당신은 누구 가르침을 따릅니까?" 붓다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서 벗어났으며 그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고 부르리요" 하고 자신이 붓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우파카는 "훅이 그렇지도 모르지요" 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린다.

우리는 '붓다'는 말을 '눈으로 보다'로 여긴다. 참말일까? '장 보러 간다'에서 '보다'는 물건을 둘러보고(視覺), 만져보고(觸覺), 냄새맡고(嗅覺), 맛보고(味覺), 귀로 듣는(聽覺) 걸 모두 아우른다. 이처럼 '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오감五感은 물론 육감六感까지 두루하는 통섭通涉이다.

붓다와 우파카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파카는 붓다한테서 나오는 기운을 느꼈지만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비롯된다'는 상식에 얽매어 붓다 지닌 느낌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붓다를 봤지만 붓다를 보지 못했다. 붓다는 건 은뎀으로 만나는 일이다.

지난 3월 열반에 드신 법정 스님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모든 장례절차를 마다하고 입던 옷 그대로 평상에 누워 불에 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법정 스님을 보았을까?

글 변태주 맑고향기롭게 배서 / 사진 이종승 사진작가

하늘이 풀린 듯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여름날, 콘지암에 있는 '보원요'로 도예가 지현 知軒 김기철(78)을 찾았다. 79년, 법정 스님이 펴낸 수필집 <서 있는 사람>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지현 선생은 스님이 다기茶器를 구하려고 인사동엘 가셨다가 쓸 만한 건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사고 되돌아오셨다는 내용을 보고, 스님을 잘 안다는 이웃에게 "스님께 다기를 한 벌 드리고 싶다"고 했다. 얼마 뒤 법정 스님과 첫 만남. 그리고 서른 해. 지현 선생과 부인 본자연本自然 보살에게 법정 스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지현: 저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예법도 잘 몰라요. 여태껏 법정 스님한테 합장을 하고 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날마다 산에 가서 합장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 해 동안 연습했지만, 어색하고 속스러워 스님 앞에서 한 번도 합장하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이 오셨어도 단 한 번도 불교를 믿으려든지 절에 나오려든가 하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스님은 한 마디로 경계가 없고 폭이 넓은 분이셨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드리면 늘 해결책을 주셨죠. 스님도 사람인지라 함부로 털어놓기 어려운, 이런저런 속사정을 털어놓곤 하셨어요. 오시면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웃고, 또 웃으셨어요. 우리 밥이 참 맛있다고 늘 많이 잡수셨죠. 참 좋은 인연인데, 아휴~ 그냥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본자연: 누구나 그렇지만 저희도 스님 책을 통해서 스님을 보았습니다. 방학 때면 식구들이 다 같이 불일암에 가서 며칠씩, 스님과 밥을 해먹고 이야기 나누곤 했어요. 밤에는 다실에 올라가서 차 마시고 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요. 다들 스님을 가

까이하기 어려워하는데, 저희는 스님을 그냥 아저씨랄까. 버릇없이 보일만큼 스스럼이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 부부 금혼식을 맞아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스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 한켠이 허전한 게 영 서운했어요.

지현: 우리는 삼남매를 두었는데 규호는 남달리 장난이 심해 걱정을 좀 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규호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그러셨지만, 규호가 가장 덕스럽다고 하셨죠.

본자연: 저희 딸은 집안 식구들이 반대하는 프랑스 유학을 스님 도움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사진을 배우고 나서 세 얻어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들이 보게끔 첫 전시회를 열었어요. 한 20년 전쯤 다녀? 꽤 오래전 일인데, 그때 프랑스에 가신 스님이 일부러 딸이 사는 곳을 찾아오셔서 전시를 보시고는 한 말씀 적어놓고 가셨어요. "미현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안심이다"고. 올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딸아이가 전화를 했더군요. 사진을 정리하다가 스님이 써놓으신 글을 다시 보게 됐는데 새삼 콧등이 시리고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그릇 쓰임새는 그릇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차가 담기지 않은 찻잔은 가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차나 찻잔일지라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빛을 잃는다.

"이번에 나온 연일 茶器 아주 좋습니다. 차관과 속우, 찻잔 그리고 퇴수 그릇까지 하나하나 만지고 바라볼수록 정이 갑니다. 물레를 돌려 만든, 판에 박은 제품이 아니고 정성을 기울여 날마다 손으로 빚어 만

든 그릇이기 때문에 만든 이 인품이 배어 있습니다. 천연스런 때깔도 빼어나고 연일을 담은 속우와 찻잔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차는 좋은 그릇을 만나야 비로소 그 차가 지닌 빛과 향기와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茶器는 차를 마시고 싶게 합니다. 좋은 다기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잘 쓰겠습니다. 남은 봄철 두루 淸安하십시오.

-2001. 4. 19 아침 새 다기를 매만지며 法頂 法頂

-법정 스님은 지현선생이 빚은 찻잔으로 차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입술에 닿는 이 느낌이 마음에 속들어서 꼭 이 찻잔만 써요." 비결이 뭐냐?

지현: 글썽 비결이랄 건 없어요. 요즘은 대개 가스를 쓰고 전기 물레를 써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손으로 빚어 용가마에다가 소나무를 때서 자기를 구우니까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늘 "때깔이 좋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꽃을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꽃을 키웠어요. 그 인연으로 잎이나 꽃에 담긴 기운이 내 속에 스며들었다가 도자기를 빚을 때 손끝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늑하게 느껴요. 그러럼 알게 모르게 스님에게 받은 좋은 기운이 선으로 빛났을 때 드러났을 거예요. 스님은 찻잔 굵이 약간 밖으로 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다고. 어느 해 겨울, 법정 스님을 모셔서 다기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속우 熟釜가 완벽하게 균형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연일이 말린 느낌을 살려 우리 태극무늬 곡선을 재현했죠. 스님이 보시곤 "아,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법정 찻잔'이에요. 먼저 백 필집 만들어 구웠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한 이십 벌이나 나왔을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스님께 드렸어요. 디자인 값을 그렇게 치른 셈이죠.

-지현 선생 솜씨는 남다르다. 도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 댁 가마에서 도자기를 빚던 도예과 학생 손에 이끌려 참여한 공간대상에서 탈락 대상을 차지할 만큼, 그때 심사를 주관했던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꽃임을 모티베이션한 이 작품을 불수감佛手柑이라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부처님 손잡이 생겼다고 불인 이름. 이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우리 솜씨를 봤겠다. 지현 선생 작품은 현대미술관은 물론 대영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달력에 실린 12점, 백남준을 비롯한 빼어난 내·외 거장들 작품 가운데 선생 작품이 들었다.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본 사람이라면 그 규모에 압도당한다. 규모만 놓고 보면 자금성이 경복궁을 압도한다. 하지만 우리 경복궁은 뒤로 감싸 도는 인왕산, 북악산과 어울려서 그대로 그림이 된다. 완당 玩堂이 말했다. '대교약축 大巧若拙' 큰 재주는 약해 보인다. 절대미감은 개체에서 전체로 나가는 길이다.

지현: 요즘 절들이 불사를 벌이면서 조화로운 분디 모습을 많이 잃었어요. 그나마 송광사가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송광사 대웅전을 새로 지을 때 스님은 그렇게 지으면 조화가 깨진다고 반대하셨어요. 여러 해 전 유럽 환경잡지를 본 적이 있어요. 송광사 전각 지붕선 연결이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데 대웅전이 우뚝 솟아 안타깝다는 글이 실린 걸 보면서 법정 스님 말씀이 떠올랐죠. 이 작업장은 1988년에 지어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사만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름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소프트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영험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영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